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출수형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山)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구름도 떠 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人跡) 끊인 듯,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어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生)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박두진, 「도봉(道峯)」 -

(나)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설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편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A]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밭둘레나 쭉니풀 같은 것들
 또 한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 언덕
 꽃상여

때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 서정주, 「풀리는 한강가에서」 -

(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힌 동사자가 ㉢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B]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② (가), (다)에서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 (다)의 화자는 상황의 의미를 제기하며 그 의미에 대해 파고들고 있다.
- ④ (가), (나), (다)의 화자는 자연물과 관련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의 화자는 구도적인 자세로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2.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승-전-결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의문제기의 표현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정형률의 율격을 지키면서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청자에게 직접 들려주면서 화자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⑤ 의미상으로 대립하는 시어를 병치시켜 시상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시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두진의 초기 시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1930년대 시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이 자행되던 암흑기의 현실이 시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비관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다고 하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다림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 ① 산 속에 홀로 앉은 화자의 모습은 암울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인의 고립감을 보여주는 군.
- ② 저녁에서 밤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서가 심화되는 것은 부정적 현실에서 가중되는 고통과 관련되는군.
- ③ 산은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자연으로 상징되며, 현실을 초월한 절대자로 나타나는군.
- ④ 밤과 더불어 별도 온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는군.
- ⑤ 그대를 위해 밤과 슬픔을 갖겠다는 화자의 심리는 부정적 현

실에서 긍정과 희망을 꿈꾸는 역설의 논리이군.

4. (나)의 [A]와 (다)의 [B]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직유법을 통해 화자의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운동적 이미지를 통해 의미의 고양을 가져오고 있다.
- ③ [A]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B]에서는 촉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④ [A]는 청자를 위해서라면, [B]는 화자 자신을 위해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비슷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A]는 화자의 설움을 심화하는 반면, [B]는 화자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5. (다) 시의 밑줄 친 ㉮ ~ ㉰을 이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을 거야.
- ② ㉯ : 슬픔과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 ③ ㉰ :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과 '홀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때문이야.
- ④ ㉮ : 청자의 기쁨은 소외된 이에게는 슬픔을 의미하고 있어.
- ⑤ ㉰ : 청자에게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야.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후회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결과가 좋지 않거나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 결정을 하기도 전에 후회를 하기도 한다. 상상을 통해서 현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반사실적 생각 때문에 후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후회의 씩쓸함은 그것이 정당하든 안 하든 사람들의 만족감을 줄이게 된다. 후회의 감정을 낳게 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그 요인을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후회의 민감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 덜 만족하고 덜 낙관적이고 더 우울한 경향이 있다. 또 충분히 좋은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최상의 것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후회의 민감도가 높다. 삶의 목표와 기준을 최상으로 잡고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일상적 생활 하나하나에 매달리다 보니 자신이 선택한 것에 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성향은 선천적

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많은 대안들이 놓여 있을 때 선택과 결정을 머뭇거리게 되고 최상의 선택을 위해 고민하게 된다. 대안이 적으면 쉽게 선택하여 행동으로 이어지겠지만, 대안이 많이 펼쳐지면 결과에 상관없이 ㉠**반사실적** 생각 때문에 후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후회가 나타나기도 한다. 행동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음을 후회한다. 또 행동을 함으로써 나쁜 결과가 있었을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사람들은 후자를 더 후회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행동하지 못함을 행동한 것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행동한 것을 더 후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에 걸친 일이라면 사람들은 행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즉, 전반적인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은 것들을 후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나쁜 교육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고 싶어 했는데 하지 못한 교육을 후회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에 하지 못했던 점들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후회가 밀려오는 것은 객관적인 결과가 나빠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취향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실제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심리와 결합될 때 사람들은 좌절과 후회를 더 많이 하게 된다. 후회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6.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만 후회가 따른다.
- ② 개인의 경험은 후회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행동을 하지 않으면 후회도 생기지 않는다.
- ④ 후회와 기대 수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 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한다.

7. ㉠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친구의 초대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예상과 달리 식사와 분위기가 좋지 않다.
- ② 올림픽에서 은메달 수상자가 실수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인다.
- ③ 바지를 사기도 전에 다른 가게에 더 좋은 바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망설인다.
- ④ 전날 공부를 1시간 더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시험을 치르고 있다.

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내년에는 상위권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한다.

8. <보기2>는 [A]상황에서 <보기1>를 바라보았을 때 나타난 반응들이다.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보 기 1>

갑돌이는 S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작년에 그는 K회사의 주식으로 바꿀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 때 K회사 주식으로 바꿨다면 지금 1000만원의 이득을 보았을 거라고 갑돌이는 생각한다. 반면에 갑식이는 K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작년에 그는 S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었다. K회사의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지금 1000만원의 손실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갑식이는 생각한다.

<보 기 2>

- ㉠ 두 사람 모두 후회하고 있다.
- ㉡ 갑돌이가 갑식이보다 더 후회하고 있다.
- ㉢ 시간이 지나면 결과보다는 소망에 기초한 다른 후회거리가 나타난다.
- ㉣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서 생겨난 후회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하늘에 낮게 깔린 먹구름이 금방 비를 퍼부을 것 같다.
- ② 새 정부는 세금을 낮게 매겼다.
- ③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도 낮은 편이다.
- ④ 소령은 대령보다 계급이 낮다.
- ⑤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단호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양에서 이탈리아 민화와 구전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17세기 경 벨칸토라는 발성을 기초로 하는 성악음악이 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설화를 성악적으로 전달하는 판소리 양식이 확립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벨칸토와 판소리는 이야기 서사를 전달하는 음악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을 성악적으로 표현하는 발성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서양의 벨칸토 발성법과 우리나라 판소리의 발성법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판소리의 음악적 특성을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벨칸토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무리가 없고 발성기관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음이 흘러나오는 발성을 최선의 발

성법으로 삼는다. 반면 판소리는 성대나 목구멍을 압박하여 매끄럽지 못하고 켄켄한 소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벨칸토 발성법에서는 머리 공명을 중시하는 반면 판소리에서는 가슴 공명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판소리는 남창이나 여창이나 음역의 구분이 없어 판소리 소리꾼은 서양 음악의 성악가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음역을 소화해야 한다. 또 판소리에서는 '통성'이라 하여 단전호흡에 의하여 힘을 모아 숨을 올려 내면서 소리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는데, 이는 서양의 무대 발성법에서 중심잡기 호흡법과 유사한 발성법이다.

판소리 소리꾼들이 내는 목소리의 종류와 소리의 특질은 매우 다양하다. 판소리의 이러한 소리들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성'과 '목'이 있다. 먼저 목소리의 색깔이나 특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성'자가 붙은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수리성은 쉰 목소리처럼 적당히 거칠면서 켄켄하게 나오는 소리를 말한다. 이 소리는 약간 갈라진 듯 구수하게 곱삭은 맛을 풍기는데, 가장 이상적인 소리로 꼽힌다. 천구성은 딱 튀어나오는 소리로서 역시 거칠고 쉰 소리이지만, 상대적으로 맑은 기운을 머금은 소리를 말한다. 그리고 목소리의 표현과 운용 기법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목'자가 붙어 있다. 예를 들면, 느긋하게 스스로 푸는 목소리인 '푸는 목', 소리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 맺어서 꼭 잘라 떼는 목소리인 '찍는 목', 떼지 않고 달아 붙이며 하는 목소리인 '다는 목' 등이 있다.

벨칸토 발성의 원리는 호흡과 발성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와 노래할 때의 공명의 위치 설정을 다르게 하지 않는다. 즉, 말할 때나 노래할 때 경구개 앞부분부터 얼굴 앞쪽까지 공명이 시작되는 위치로 설정해서 발성한다. 이는 공명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얼굴 앞에서 노래하라'라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또한 발성기관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노래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열고 노래하라'라는 격언으로 나타난다. ㉠ **열린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의 모양과 입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벨칸토 발성법은 책으로 전해지고 계속 연구되어 서양 성악의 발성법으로 자리잡았다. 반면에 판소리 음악은 악보 없이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판소리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벨칸토 발성법과 판소리 발성법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판소리의 특징을 알아내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10.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원을 통해 대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논리적 증명 과정을 거쳐 의견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전문적 어휘를 나열하여 대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부연 설명을 통해 대상의 여러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판소리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맑은 소리와 관련된다.
- ② 자연스러운 발성법은 호흡과 발성을 함께 하는 것이다.
- ③ 벨칸토 발성법과 판소리 발성법에서 공명 위치가 서로 다르다.
- ④ 판소리에서 소리의 종류와 소리의 기법을 나타내는 어휘가 다양하다.
- ⑤ 벨칸토 발성과 판소리 소리의 차이는 발성 기관의 사용 방식의 차이와 관련된다.

12. 위 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소리의 소리꾼들은 '득음'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피나는 수련과 각고의 고생 끝에 얻어지는 판소리 최고의 경지를 말한다. 득음 경지에 오른 소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터진 소리여야 한다는 점이다. 터진 소리는 다년간 수련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크고 본래의 소리에 '살이 많이 찢 소리'이다. 그 다음으로 소리의 폭이 커야 한다. 소리의 폭은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를 전부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음색과 소리 표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성음의 다양한 기교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나타난다. 또한 판소리의 숨은 길어야 한다. 판소리 발성은 단전 호흡과 관련되어야 숨이 길어지고, 단전에서 나오는 힘으로 장시간 소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관객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소리어야 득음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판소리꾼의 음역 확보는 절대적 요구사항이군.
- ② 터진 소리는 쉰 목소리처럼 켄켄한 음색을 지닐 거야.
- ③ 판소리 호흡법과 벨칸토의 호흡법은 유사한 데가 있어.
- ④ 판소리꾼의 여러 소리 표현은 소리 운용 기법과 관련이 되군.
- ⑤ 판소리꾼의 소리 기교는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군.

13. 밑줄 친 ㉠ 을 추론한 것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올바른 입모양은 호흡과 발성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한다.
- ② 소리가 경구개 부분에서 울리도록 소리의 방향이 유도된다.
- ③ 목에 힘이 들어가면 닫힌 소리가 되므로 목과 가슴을 이완시켜야 한다.
- ④ 경구개의 공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안의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야 한다.
- ⑤ 공명의 위치는 얼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머리 공명을 해서는 안 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말’을 이용하여 기계와 인간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즉, 사람의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과 글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에는 음성 신호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글자나 문장으로 나타내는 음성 인식 기술, 누구의 음성인지 구분해내는 화자의 인식 기술, 주어진 단어나 문장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음성 합성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 기술이 결합함으로써 음성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과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 기기가 사람의 음성을 알아 듣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성하는 음소, 음절, 단어, 문장 등의 인식 단위의 특징적인 신호를 찾아, 기준패턴으로 만들고 이를 음향 모델로 설정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다. 사람의 음성이 입력되면 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한 후 저장된 기준패턴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것을 음성 인식의 결과로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은 사람의 소리인 ㉡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아닌 ㉢ **소음**을 구별하고, 음성의 특징을 파악해내는 일이다. 사람마다 목소리나 발음 특성이 다른데다가, 음성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음성 특징을 구별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음성 신호를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자르고 각 구간별로 소리의 주파수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음성의 특징을 파악한다. 음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므로 음성 특징은 짧은 구간에서만 안정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입력된 음성에서 그 특징이 밝혀져 입력패턴이 정해지면, 이를 컴퓨터에 저장된 기준패턴과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발음할 때마다 발음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패턴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력패턴과 기준 패턴의 발음 시간을 같게 만들어 비교한다. 이 방식으로도 올바르게 비교되지 않을 경우 입력 패턴과 기준패턴의 발음 시간을 같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각 음파에 있는 정점들의 시간까지 일치시켜 비교함으로써 음성인식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을 비교하여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은 인식 대상의 어휘가 늘어나면 계산량이 방대해져 음성 인식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통계학적인 확률 모델이 많이 사용된다. 즉, 음성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각 대상 음소나 단어마다 고유한 음향 모델을 할당하고, 입력되는 음성이 어떠한 고유 음향 모델과 확률적으로 연관성이 높은지 측정하여 음성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확실적인 인식 과정은 소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음성을 측정정한 후 결과를 내놓는다. 예를 들면, 입력된 음성이 “㉣”, “㉤”, “ㅇ”이라는 각각 음소 모델로부터 순차적으로 생성되

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입력된 음성은 “강”이라는 말로 인식된다.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와 같은 신호처리의 음성 인식 과정뿐만 아니라 언어적 지식을 적용시키는 언어 모델 처리 과정을 거쳐 인간과 기계 사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4. 위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향모델과 음성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 ② 음성은 긴 시간 구간에서는 패턴 특징을 갖지 않는다.
- ③ 동일한 시간에 음성 패턴을 비교하는 기술이 확률 모델 기술보다 먼저 사용되었다.
- ④ 확률 모델을 이용한 음성인식 기술은 소리의 연속적 과정을 통해 확률적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음성 인식 속도가 빠르다.
- ⑤ 정보기기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음성신호 분석과정→음향모델 비교과정→언어모델 처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5. 밑줄 친 ㉠이 적용되는 분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인 콜센터
- ② 자동번역기
- ③ 114 무인 자동안내
- ④ 지능형 로봇
- ⑤ 버스카드를 이용한 승하차 시스템

16.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에는 언어와 관련된 기술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각 나라의 언어마다 고유한 음소 체계 및 문법 체계가 있으므로 음성을 인식하는 정보기기의 개발은 각 나라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정보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우리말의 음성인식 정보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의 축적, 한국어 언어 특성에 관한 지식의 축적,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어는 영어와 음소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미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된다. 또 매우 짧은 발음을 가진 조사에 의해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영어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숫자의 경우 단음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발음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음성인식 판단이 매우 어렵다.

- ① 우리말의 고유한 음소 체계에 따라 음성인식 정보기기가 개발될 거야.
- ② 숫자의 음성 패턴이 뚜렷하지 않아서 음성 인식에 어려운 점이 있어.
- ③ 음성인식 정보기기가 우리말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 ④ 단음절로 이루어진 모든 우리말은 그 음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워.
- ⑤ 음성인식 정보기기 개발은 언어 기술의 개발이 관건이 돼.

17. 밑줄 친 ㉠와 ㉡의 문맥적 단어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찰나(刹那) - 순간(瞬間)
- ② 현재(現在) - 미래(未來)
- ③ 역사(歷史) - 선사(先史)
- ④ 예술(藝術) - 음악(音樂)
- ⑤ 도로(道路) - 철도(鐵道)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벼슬길도 나그네 길이라 밤마다 꿈을 꾸노라면

㉠ 고향의 푸른 산을 언제나 맴돌았었지.

허술한 집이나마 비바람 막을 수 있어
처자식 이끌고 돌아왔어라.

내 재주 원래가 모자라서 한 것이니
벼슬 일찍 버린 것도 아쉽지 않아라.

내 본성 원래가 웅졸하게만 살아왔기에
세상 건너기가 어려운 걸 알겠어라.

마을에 잔치 벌이니 고향 사람들 백안시하지 않고,

㉡ 고깃배에 술 취하여 얼굴들 모두 붉어라.

선인들 남기신 글 다시금 읽어 가며

남은 생애 이 가운데 내어 맡기리라.

羈夢棲棲繞碧山	敝廬風雨挈家還
才疎敢惜休官早	性拙深知涉世艱
鄉里開筵無白眼	釣船沽酒每朱顏
殘書點檢先人跡	已辨餘生付此間

-정약용, 「봉화계부운(奉和季父韻)」-

(나)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데 ㉠ 전산후산에
황금 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에 굽일면서
한가히 보이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내어
일분은 밥쌀하고 일분은 술쌀하여
밥먹어 배부르고 술먹어 취한 후에

㉡ *함포고복하여 격앙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라

㉢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윈 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없다가 하라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뵈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라
천동할 줄 알았으면 잠간 루에 올랐으라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실었으라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 벌였으라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 탐차 하였으라
산진매 수진매와 해동청 보라매가
심수총림 숙여 들어 산계야양 차고 날제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 걸리었다
먹기에 탐심나서 형극에 걸리었다

*함포고복(含哺鼓腹) :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

*탐화봉접(探花蜂蝶) :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여 찾아가는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안조환, 「만언사(萬言詞)」-

(다)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그러나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까지 불명예라고까지 할 것도 없는 질환을 가지고, 어떤 학부(學府) 부속병원에 갔다. 진찰이 끝나고 인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그리 보기 좋지 않은 베드 위에 올라 누웠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수십 명의 *흑장숙(黑裝束)의 장정 일단이 우우 틀입(闖入)하여 내 침상을 둘러싸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학부 재학의 학생들이요, 이것은 임상강의 시간임에 틀림없다. 손에는 각각 노트를 들었고, 시선을 내 환부인 한 점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사, 즉 교수는 서서히 입을 열어 용의주도하게 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개소(個所)를 주무르면서, 유창한 어조로 강의를 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나

에게 있어서 참으로 천만의외의 일일뿐 아니라, 정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봉변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A] 그들은 대체 누구의 허락을 얻어 나를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것인가? 옆구리에 종기 하나가 나도 그것을 남에게 내어 보이는 것이 불쾌하겠거늘, 아픈 탓으로 치부를 내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그마한 기회를 타서, 밀천 들이지 않고 그들의 실험동물을 얻고자 꾀하는 것일 것이니, 치료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런 굴욕을 받아야만 된다는 제도라면 *사차불피(事此不避)일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변(變)만은 어디까지든지 불쾌한 일이다.

의학의 진보, 발달을 위하여 노구찌 박사는 황열병에 넘어지기까지도 하였고, 또 최근 어떤 ㉠ 학자는 *호열자균(虎列子菌)을 스스로 삼켰다 한다. 이와 같은 예에 비한다면, 치부를 잠시 ㉡ 학생들에게 구경시켰다는 것쯤 심술부릴 거리조차 못 될 것이다. 차라리 잠시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것이 진지한 연구의 한 도움이 된 것을 광영(光榮)으로 알아야 할 것이요,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드시 이렇게 실험동물로 제공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리라. 환부를 내어 보이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도 유쾌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의학만이 홀로 문화의 발달, 향상을 꾀어준 것은 아니었고, 이 사회에서 생활을 향유하는 이 치고는 누구나 적든 많은 문화를 담당하는 일원임에 틀림없다. 허락 없이 의학의 연구재료로 제공될 그런 호락호락한 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는, 교수는, 박사는, 그가 어떤 종류의 미미한 인간에 불과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그의 감정을 존중히 하여, 일언 간곡한 청탁의 말이 있어야 할 것이요, 일언 승낙의 말이 있는 다음에야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는 이런 종류의 기여를 혼연히 하게 하는 새로운 도덕관념의 수립과 새로운 감정 관습의 보급에 있을 것이다.

어떤 ㉢ 해부학자는 자기의 유해를 담임하던 교실에 기부할 뜻을 유언하였다 한다. 그의 제자들이 차마 그 스승의 유해에 해부도를 대이기 어려웠을 줄 안다.

또, 어떤 학술적인 전람회에서 사형수의 두개골을 여러 조각에 조각조각 쪼개놓은 것을 본 일이 있다. 얼른 생각에 사형수 같은 인류의 해독을 좀 가혹히 짓주물렀기로서니 차라리 그래 썩 일이지,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혼백이 이미 승천해버린 유해에는 죄가 없을 것이니, 같은 사람대접으로 취급하는 것이 지당한 일일 것이 아닐까? 또한 본인의 한 마디 승낙하는 유언을 얻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의 예를 갖추어주어야 옳으리라.

나환인(癩患人)을 위하여 - 첫째 격리가 목적이겠으나 - 지상의 낙원을 꾸며 놓았어도, 소록도에서는 탈출하는 일이 빈번히 있다 한다.

만일, 그런 감정이나 도덕의 새로운 관념이 보급된다면, ㉤ 사형수는 의례(依例)히 해부를 유언할 것이요, 나환자는 자진

하여 소록도로 갈 것이다.

“ 내 치부에 이리이러한 질환이 발생하였는데,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듯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학자와 학생들이 모여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고, 나서는 ㉞ 기특한 인사가 출현할지도 마치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 학생들 앞에 치부를 노출시키는 영광을 얻기에 경쟁들을 하는 고마운 세월이 올는지도, 또 마치 모르는 것이요, 오기만 한다면 진실로 희대의 기관(奇觀)일 것은 기관일 것이나, ㉟ 인류문화의 향상발달에 기여하는 바만은 오늘에 비하여 훨씬 클 것이다.

*흑장숙(黑裝束) : 입고 매고 하여 몸차림을 든든히 갖추어 꾸미거나 그런 차림새를 장숙이라 한다. 흑장숙은 검은색으로 꾸민 것이다.

*사차불피(事此不避) : ‘이 일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호열자(虎列子) : ‘콜레라’의 음역어.

- 이상, 「기여(寄與)」 -

18.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독백적인 어조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냉소적인 표현으로 세태를 꼬집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 화자는 자신과 세계 사이에 모순을 느끼고 있다.
- ④ (가) ~ (다)는 화자의 경험을 토대로 화자가 교훈을 말하고 있다.
- ⑤ (가) ~ (다)는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해결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 ~ ㉤ 중 (다)의 [A]에 나타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순간순간에서도 세계와 대립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때 사람들은 세계와 거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자각한다. 이렇게 사람이 심리적 간격을 두고 세계와 자신을 분리된 상태로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① ㉠ : 고향의 푸른 산을 언제나 맘돌았었지
- ② ㉡ : 고깃배에 술 취하여 얼굴들 모두 붉어라
- ③ ㉢ : 전산후산에 황금 빛이로다
- ④ ㉣ :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 ⑤ ㉤ :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윈 줄 아니

20. (가) 시의 화자와 (나) 시의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 : 당신이 지난 세상일을 후회하는 것에 이해가 갑니다. 세상일이란 쉽지가 않죠.
- ② (나)의 화자 : 그래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그대는 다행입니다.
- ③ (가)의 화자 : 고향이라도 산천은 그대로이지만, 인심은 사납습니다.
- ④ (나)의 화자 : 저는 농사 짓는 농부의 여유가 부러운 걸요.
- ⑤ (나)의 화자 : 그리고 저는 당신처럼 한가롭게 글을 읽고 세상의 뜻을 살필 상황도 아닙니다.

21. (나)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직에 올라 자신이 활동한 것들을 후회하고 있다.
- ② 대구적 표현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화자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 ④ 진작부터 소박한 삶을 화자의 이상적 삶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22. (다)의 밑줄 친 ㉠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 ① ㉠ : 학자
- ② ㉠ : 학생
- ③ ㉠ : 해부학자
- ④ ㉠ : 해부를 유언한 사형수
- ⑤ ㉠ : 기특한 인사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러시아의 우주론자이자 수학자인 프리드만은 1922년 프리드만 방정식을 도출하여 현재의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프리드만 우주모형이며, 이것에 기초한 우주론이 바로 '빅뱅이론'이다. 즉, 현재의 우주가 대폭발로 생겼으며, 따라서 시, 공간의 시작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별들 사이의 거리가 확대되고 있는 우주 공간이 계속 무한대로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수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주의 밀도와 관계가 있다. 팽창을 하다가 멈추는 우주의 밀도를 우주의 '임계 밀도'라 하며, 이는 10^{-29} g/cm^3 , 즉 1m^3 부피에 수소 원자 6개가 있는 정도의 밀도이다. 우주의 평균 밀도와 임계 밀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우주

진화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대폭발로 탄생한 우주가 ㉠ '닫힌 우주'로 갈 경우이다. 이는 우주 안에 물질이 매우 많아 수축하려는 중력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 운동 에너지보다 큰 경우이다. 이 경우 우주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한다. 그리하여 우주 초기의 빅뱅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면서 시, 공간이 소멸한다. 이 때를 '대붕괴(Big Crunch)'라 한다. 닫힌 우주에서는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는 멀어지다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0'이 된다. 그렇다면 물질이 얼마나 많아야 우주의 시, 공간이 닫힐까? 이론상으로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높으면 가능하다.

다음으로 ㉡ '열린 우주'로 갈 경우이다. 이것은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낮아서, 중력 에너지가 팽창 운동 에너지보다 작은 경우이다. 우주 공간 내 물질이 이렇게 적은 경우, 우주는 중력을 이겨 내고 영원히 계속 팽창하여 길고 차가운 상태, 즉 '빅칠(Big Chill)'을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열린 우주에는 있는 별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시간이 끝없이 흐르며 시, 공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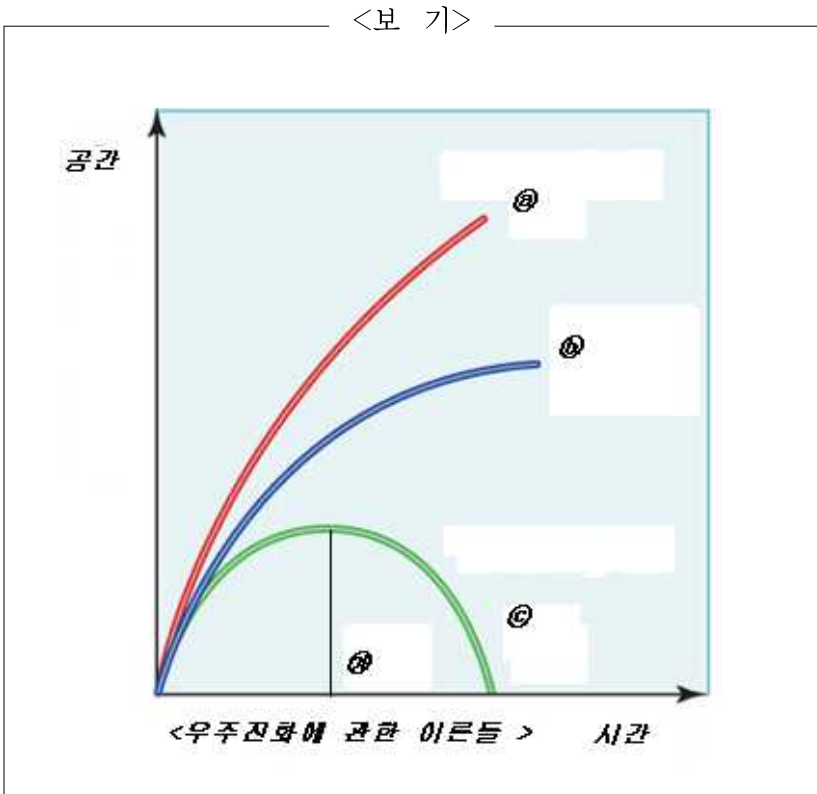
마지막의 가능성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정확히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 팽창 운동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와 같으므로 우주의 팽창 정도는 계속 느려지지만 팽창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영원히 계속 팽창을 하지만 팽창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할 뿐이다. 결국 팽창률이 0에 가까워지겠지만 결코 '0'은 아니다. 이런 특별한 우주를 ㉢ '평탄한 우주'라고 한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가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중 어떤 모습일지 연구하고 있다. 이 세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평균 밀도를 정확히 재 봄으로써 풀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우주의 평균 밀도를 임계 밀도 근처의 값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 값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23.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 ② 우주 시작에 관한 이론은 특정한 우주 모형과 관련된다.
- ③ 우주에 관한 이론은 물질과 운동 간의 물리적 법칙과 관련된다.
- ④ 중력 에너지와 팽창 에너지는 서로 반대 방향의 운동성을 갖는다.
- ⑤ 우주의 임계 밀도와 평균 밀도를 아직 정확히 계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24. 위 글의 밑줄 친 ㉠ ~ ㉣의 내용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 ㉡, ㉢ 모두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군.
- ② ㉣는 ㉡에, ㉤는 ㉢에, ㉥는 ㉠과 연결되는군.
- ③ ㉣ 그림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밀도는 점점 낮아지겠군.
- ④ ㉤ 그림에서 특정한 시점 이후에는 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겠군.
- ⑤ ㉢ 그림 ㉣ 시점에서는 팽창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군.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 언어를 표현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단계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잠재적 표현을 머리에 떠올리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그런 잠재적 표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전자에서는 특정 표현이 특정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표현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다. 후자에서는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련되는 경제성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가 나타난다.

언어는 크게 정보 전달의 기능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에 바탕을 둔 원리가 경제성의 원리이고, 사회적 기능에 토대를 둔 원리가 공손성의 원리이다. 그런데 언어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은 서로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자는 하나의 표현을 떠올릴 때 정보 전달 효과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언어 사용의 원리가 결정 이양의 원리이다.

언어 사용에서 결정 이양의 원리는 화자가 판단이나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청자에게 넘겨주는 원리를 말한다. 화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을 완전히 결정짓지 않은 채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청자 스스로 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 사용의 원리는 모든 내용을 다 채워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어 표현함으로써 그 남겨진 부분을 청자 스스로 채워 넣게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정보 전달에서 ㉠ **경제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당연히 남겨두기가 적용된 표현이 남겨두기가 적용되지 않는 표현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 이양의 원리는 ㉡ **공손성의 원리**와도 관련된다. 화자가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청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청자와 사회적 관계를 배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손성의 원리는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장 : 김대리의 요즘 근무 태도는 어때?
 부장 :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부장은 청자인 사장이 스스로 생각하여 김대리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음을 판단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판단을 청자에게 넘겨준 것은 화자가 청자나 김대리와 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임법이 발달해 있는 우리말의 언어적 특성은 담화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된다. 이처럼 결정 이양의 원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말에는 생략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청자가 생략된 문법적 성분을 상황 맥락에 맞게 채워 넣어야 한다. 우리 그림에서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 것처럼 언어 표현에서도 '은근함'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언어 사용의 원리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다.
- ② 우리말의 특성은 청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특성이 있다.
- ③ 화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
- ④ 결정이양의 원리는 화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⑤ 청자는 화자의 표현을 의사소통 맥락에서 살피지 않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다.

2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 ~ ㉣ 부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 기>

㉠ 우리 일상 생활에서 결정 이양의 원리가 포함된 표현 방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 처음으로 대면한 사람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켜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상대의 자랑거리를 화자가 직접 말하지 않고 청자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 ㉢ 화자가 판단한 내용을 단언적으로 말하지 않고 질문의 형식으로 묻는 것, ㉣ 결론은 말하지 않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근거만 제시하는 방식, ㉤ 청자에게 말할 내용을 제삼자에게 말함으로써 돌려서 말하는 방식, 이외의 다양한 방식에서 결정 이양의 원리가 나타난다.

- ① ㉠ : 일상 생활은 언어를 통한 정보 교환과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이야.
- ② ㉡ : 화자와 청자가 처음 대면하게 되므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둘 거야.
- ③ ㉢ : 청자는 화자의 질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화자의 판단 내용을 확실히 해주는 효과가 생길 거야.
- ④ ㉣ : 결론을 청자에게 미룸으로써 최종 판단을 청자에게 넘겨주고 있어.
- ⑤ ㉤ : 청자가 듣기 곤란한 내용일 경우 제삼자에게 말함으로써 화자는 경제성의 원리를 실현시키려는 거야.

27. <보기1>의 내용을 토대로 위 글에서 나온 ㉡와 ㉣의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1>

경제성의 원리는 가능한 직접 표현하지 않고 청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청자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두 정보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하나의 표현으로 줄여 말하는 것, 연속되는 단계의 정보가 서로 관련이 있을 때 그 단계를 줄여 말하는 것, 정보가 복잡할 때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성의 원리는 가능한 청자 위주로 말하는 것으로, 청자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 것, 청자의 바람이나 믿음에 위배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는 것, 타인의 부정적인 것을 줄여서 말하는 것, 나의 긍정적인 것을 줄여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2>

- ㉠ 누가 떠들지?
- ㉡ 학교 앞 천천히
- ㉢ 철수 : 오늘 저녁 나랑 영화 볼래?
영희 : 다음 주에 볼 시험 준비해야 돼.
- ㉣ 철수 : 커피 드시겠어요?
영희 : 고맙습니다.

	㉡ 경제성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가 서울이야?」
나는 힐난하는 투로 말했다.
「아니」
㉠ 엄마가 뜻밖에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나에게 그건 거기가 서울이라는 것보다 훨씬 뜻밖이었다.
「여긴 서울에서도 ㉡ 문밖이란다. 서울이랄 것도 없지 뭐. 느이 오래비 성공할 때까지 여기서 고생하면 우리도 여봐란듯이 ㉢ 문안에 들어가 살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나는 얼른 고개를 먼저 끄덕였다. 엄마의 태도는 그만큼 ㉣ 강압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알아들은 게 없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시골에 나타났을 때 엄마의 모든 태도엔 일종의 기품 같은 게 서려 있었다. 그건 누가 보기에 도 서울 가기 전의 엄마에겐 없었던 새로운 거였다. 그 도도한 건 바로 서울로부터 묻혀온 거였다. 그 도도함 때문에 엄마의 1차 출분은 별로 책잡히지 않았고 다시 나를 서울로 피어내는 일까지 순조로울 수가 있었다. 그런 엄마가 알고 보니 겨우 서울의 문밖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경성부(京城府)이지만 사대문 밖의 땅을 통틀어 문(門)밖이라고 칭하는 게 그 무렵의 관용어였던 걸 알 까닭이 없는 나는 문밖을 곧이곧대로 이해하고 갑자기 거렁뱅이로 전락한 것처럼 서럽고 ㉤ 비참했다. 나는 못된 피임에 넘어가 유괴당하고 있는 걸 깨달은 것처럼 엄마가 정떨어졌고 두고온 시골집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상자갑을 쏟아 놓은 것처럼 담 쌓인 집들 중의 하나나마 우리집이 아니라는 거였다. 현저동에서도 상상 꼭대기에 있는 초가집의 문간방에 엄마는 세들어 살고 있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생활방식에 대해서 그전에 나는 듣도 보지도 못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도 다소곳한 채로 또박또박 할말을 다하던 ㉥ 엄마가 안집 식구라면 코흘리개까지도 두려워하고 굶신대는 것이었다.
(중략)
㉦ 엄마는 이렇게 몸서리를 치면서도 그 꼭대기에 새로 장만한 집이 대견해서 어쩔줄을 몰랐다. 기둥 서까래까지 손수 양젓물로 닦아내고 구석구석 독한 약을 뿌리고 도배장판도 새로 했다. 집을 처음 산 걸 좋아하기보다는 저런 귀살스러운 집에서 어찌 살까 난감스럽기만 하던 오빠와 나도 매일매일

달라지는 재미에 학교만 갔다 오면 그 집에 붙어서 엄마를 ㉠ 거들게 됐다. 이사 가는 날은 커다란 무쇠솥을 새로 사서 엄마가 손수 부뚜막을 만들고 걸었다. 엄마는 미장이 도배장이 칠쟁이 못하는 게 없었다.

이사 간 날, 첫날밤 세 식구가 나란히 누운 자리에서 엄마는 감개 무량한 듯이 말했다.

「기어코 서울에도 말뚝을 박았구나. 비록 문밖이긴 하지만.....」

비록 여섯칸짜리 집이지만 없는 게 없었다. 안방. 마루. 건너방. 부엌. 아랫방. 대문간 이렇게 여섯 개의 방이 공평하게 한 간씩이었다. 마당도 있었다. 마당이 네모나지 않고 삼각형인 게 흠이었다. 엄마는 이런 마당을 ㉡ <우리 괴불마당>이란 애칭으로 불렀다. 새집은 셋집처럼 대문밖이 낭떠리지가 아니고 보통 골목인 대신 직사각형 마당의 가장 변이 긴 쪽이 남의 집 뒤쪽으로 난 담인데 그 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축대였다.

비가 오는 날 밤이면 오빠는 자주 잠을 깨서 들락거렸다. 축대가 무너질까봐 잠이 안 온다는 것이었다. ㉢ 엄마는 「너 석도 사내놈이 웅졸하긴 여지껏 멀쩡하던 축대가 하필 우리 살 때 무너질까」하면서 태연한 체했다. 그밖엔 아무 걱정도 없었다.

나는 괴불마당에 분꽃씨도 뿌리고 채송화씨도 뿌리고 봉숭아씨도 뿌렸다. 그러나 이사 가고 나서 나의 외톨이 신세는 좀더 심해졌다. 뽕쟁이 딸하고도 자연히 멀어졌고 나 혼자 매동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의식적인 ㉣ 따돌림을 받았다. ㉤ 엄마는 되레 그걸 바라 것처럼 좋아하는 눈치였다. 문밖에 살면서 일편단심 문안에 연연한 엄마는 내가 그 동네 아이들과는 격이 다른 문안 애가 되길 바랐다. 딸에게 가장 나쁜 거라고 가르친 거짓말까지 시키게 해가며, 또 친척의 주소를 빌리는 번거로움과 치사함을 참아가면서 심지어는 문둥이가 득실댄다는 등성이를 매일 지나다녀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까지 굳이 문안 학교에 보내지 못해 한 엄마의 뜻은 처음부터 그런 데 있었으니까.

-박완서, 「엄마의 말뚝1」-

2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인물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④ 사건 발생 당시의 판단과 어른이 된 시점의 판단이 섞여 있다.
- ⑤ 한 인물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통해 그 인물을 자연스럽게 독자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29. 밑줄 친 ㉠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현실상황을 부정하는 의지적 태도이다.
- ② ㉡ : 경제적 약자가 취하는 생존 방식이다.
- ③ ㉢ : 서울 문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감격이다.
- ④ ㉣ :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이다.
- ⑤ ㉤ :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내적 욕망이다.

30. <보기> 내용에 비추어 ㉠와 ㉡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930년대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도시적 생활과 도시 문명이 확대되었다. 조선 시대 봉건적 질서가 해체됨에 따라 사회적 상승을 노리는 새로운 욕구들이 나타나는데, 서울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심지였다.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들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 ① ㉠와 ㉡는 같은 행정 공간이지만 차별화되어 있는 공간이군.
- ② 주인공 '나'도 자발적으로 ㉡로 들어가려고 하였군.
- ③ ㉠에서 ㉡로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군.
- ④ ㉠와 ㉡의 관계는 서울 - 시골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군.
- ⑤ 식민지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군.

31.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기능을 이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판단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② ㉡ :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나타난 심리이다.
- ③ ㉢ :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있다.
- ④ ㉣ :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이사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져서 나타난 결과이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경제적 요인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고, 실제로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결정은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매우 유사하다. 경제라는 큰 게임에서 경기자의 모든 결정에는 상대 선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예상이 포함되고 있는데, 폰 노이만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 게임 이론을 발전시켰다. 게임 이론에는 크게 보면 제로섬 게임과 비제로섬 게임이 있다. 두 경기자가 파이 하나를 놓고 다툰 때,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의 합계가 0이 되는 ㉡ 제로섬 게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제로섬 게임이 있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한 경기자의 이익이 상대방의 손실로 이어지지만, ㉢ 비제로

섬 게임에서는 경기자들이 협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윈윈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게임 이론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상대방의 전략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어떻게 내올 수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적 기준으로는 '미니맥스(minimax)'와 '맥시민(maxmin)'이 있다. '미니맥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신에게 예상되는 손해 중 가장 적은 쪽을 택하는 전략이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갖게 될 이익은 곧 자신의 손실로 **㉠ 이어지기** 때문에, 미니맥스는 상대방이 갖게 될 최대의 이익 중 최소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맥시민(maxmin)'은 이

[A]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니맥스는 손실과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라면, 맥시민은 최소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안전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해 '맥스맥스(maxmax)' 전략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상대방의 전략적 판단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 밀고 나가는** 것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을 **㉢ 안** 게 된다.

현실 사회에서 **㉣ 일어나는** 게임 상황은 제로섬 게임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비제로섬 게임의 상황이다. 비제로섬 게임은 경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합계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제로섬 게임에서는 경쟁자 사이에 대립과 경쟁의 요소 이외에도 협력의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경쟁자 사이에 서로 협력하여 자신도 이득을 보고, 상대방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서로 경쟁하여 서로 모두 손실을 **㉤ 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로섬 게임은 2인의 경쟁자 사이에서 잘 나타나지만, 현실에서 경쟁은 3인 이상의 다자간 경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제로섬 게임의 양상은 그만큼 복잡하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대 경기자를 고려하지 않는 게임 상황도 있다.
- ② 게임 이론에서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③ 이익과 손실의 결과 상황을 게임 이론에서는 반드시 고려한다.
- ④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복잡하여 게임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 ⑤ 제로섬 게임과 비제로섬 게임의 구분은 게임 전체 몫의 크

기 변화와 관련된다.

33. 밑줄 친 ㉠, ㉡, ㉢의 개념에 맞는 사례로 <보기>에서 찾은 것 중 타당한 것은 ?

<보 기>

- ㉠ 가전 업체 A사, B사, C사의 과점 시장 경쟁 상황
- ㉡ 전년도 기업 실적의 분배를 놓고 이루어지는 노사간 임금 협상
- ㉢ 국가의 이익을 놓고 국가들 사이 다자간 협력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 ㉣ 영화를 아침에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가격을 낮추고, 저녁에는 가격을 올리는 상황

	㉠ 게임 이론	㉡ 제로섬 게임	㉢ 비제로섬 게임
①	a	b	c
②	a	c	d
③	b	a	d
④	b	c	a
⑤	c	a	b

34. 위 글 [A]와 <보기1>의 내용을 <보기2>의 밑줄 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게임 이론은 어떤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먼저 모든 경기자들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주어진 상황과 정보 속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성의 가정은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동시에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 정보 게임이란 모든 경기자가 게임의 상황과 조건을 서로 균등하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완전 정보 게임은 어떤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임의 전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둑처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불완전 정보 게임은 경기자가 지금까지 게임의 역사를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경기자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게임을 말한다.

<보 기 2>

주변의 수요자 100명을 놓고 장어식당과 갈비식당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하자. 하루에 한 가지 메뉴만 낼 수 있고, 영업 당일날 각 음식점이 어떤 메뉴를 낼지는 모른다고 하자. 지금까지 두 식당의 메뉴 경쟁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장어식당의 손님 숫자는 다음 표와 같다.

		갈비식당의 메뉴	
		갈비	한정식
장어식당의 메뉴	장어	45명	55명
	한정식	35명	65명

※ 표의 숫자는 장어식당의 예상 손님수이고, 장어식당의 그날 메뉴와 경쟁업체인 갈비식당의 메뉴에 의해 결정된다.

이 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장어식당은 2가지 메뉴 전략이 있다. 우선 장어식당에서 장어를 내놓는 경우, 갈비식당에서 갈비 메뉴를 내놓는다면 장어식당의 손님은 45명이고, 갈비식당에서 한정식을 내놓으면 장어식당의 손님은 55명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장어식당에서 한정식을 내놓는 경우, 갈비식당에서 갈비 메뉴를 내놓으면 장어식당의 손님은 35명이고, 갈비식당에서 한정식을 내놓으면 장어식당의 손님은 65명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어식당은 최소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 한다.

- ① 장어식당은 안전을 중시하는 맥시민 전략을 선택한다.
- ② 갈비식당은 미니맥스 전략인 갈비 메뉴를 선택하여 장어식당의 이익을 최소화한다.
- ③ 경쟁자의 미니맥스 전략과 맥시민 전략 때문에 상대방은 맥스맥스 전략을 회피한다.
- ④ 고객 수요의 한정과 불완전한 정보 상황이 이 게임의 양상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 ⑤ 손실 회피나 이익 추구나 하는 전략 선택은 경쟁 상대와 관계없이 결정되어 있다.

35. ㉠ ~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현현(顯現)하기
- ② ㉡ : 추진(推進)하는
- ③ ㉢ : 수반(隨伴)하게
- ④ ㉣ : 발생(發生)하는
- ⑤ ㉤ : 인내(忍耐)하는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때 왕부인이 중헌에서 배회하다가 문득 보니 승상이 한 소년을 이끌고 중헌에 다다라 마루 위에 오르거늘 놀라 황망히 내당으로 들어가니 승상이 중헌에 좌정하고 시비로 부인을 청하여 말하기를,

“ 이는 부인의 백년객(百年客)이라. 대접함이 옳거늘 ㉠ 어찌 피하시느뇨?”

부인이 비로소 대성인 줄 알고 마음이 불편하나 승상의 성

격이 엄격하거늘 마지못하여 나오니 승상이 웃으며 앉을 자리를 정한 후 대성이 재배하고 좌정하거늘 승상이 부인을 대하여 대성을 가리켜 말하기를,

“ 이 아이가 바로 소상서의 아들이라. 부인이 내 말을 허술하게 들으므로 내가 직접 데려왔으니 부인은 어서 빨리 여아를 불러 서로 차등(差等)이 있는가 보소서.”

하고 시비로 하여금 소저를 부르니 시비 수명(受命)하고 들어가니 부인이 주저하나 감히 말리지 못하고 잠깐 대성을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여 선비의 기상이 아니라. 내심에 불열(不悅)하여 생각하되,

‘ 채봉은 약한 여자라. 저와 어울리는 짝을 얻어 슬하의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 저 걸인을 어찌 사위로 삼으리오.’

하고 한탄하더라.

시비가 소저께 고하니, 소저가 놀라 말하기를,

“ 그 분은 외인이라, 아버지께서 어찌 뵈오라 하시느뇨? 명을 좇지 못하리니 아프다고 고하라.”

시비가 이대로 고하니 부인은 암희(暗喜)하고 승상은 불열하여 나오라 재촉하니 소저가 부명(父命)을 재삼 거역함을 사죄하고 나오지 아니하거늘 승상이 대노(大怒)하여 말하기를,

“ 네 아버 명을 거역하니 삼강(三綱)이 무너졌는지라. 세 번 재촉하여 좇지 아니하면 부너지의를 끊으리라.”

소저가 이 말을 듣고 황황경동(皇皇驚動)하여 시비를 따라 나올 때 대성이 이를 보고 피(避)코저 하거늘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 여아를 부름은 그대를 위함이라. 어찌 피코저 하는고?”

하고 소저를 재촉하니 소저 연보(蓮步)를 옮겨 부모의 명을 따르니 대성이 피하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예를 취하고 일어서더라. 공이 명하여 서로 뵈게 하니 소저가 먼저 예를 취하고 대성이 답례하여 각각 좌정하니 공이 소저를 대하여 말하기를,

“ 하늘이 인연을 내려 주시매 너를 위하여 데려왔거늘 재삼 명을 거역하여 어찌 나를 무안하게 하느뇨?”

소저 부끄러워 아미(蛾眉)를 숙이거늘 공이 대성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 ㉢ 여아가 비록 곱지 못하나 족히 그대의 재택을 욕되게 아니 할지라. 그대는 어떠하뇨?”

대성이 부복하고 칭사(稱謝)할 뿐이니 승상이 웃기를 마지아니하더라.

대성이 눈을 들어 소저를 바라보니 채복(彩服)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되 푸른 머리카락이 귀밑을 덮었으니 은은한 구름 속에 명월이 비치는 듯, 한 쌍 거울이 원산(遠山)에 걸려 있는 듯, 양협(兩頰)은 홍도처럼 춘풍에 무르녹고 단순(丹脣)은 앵두처럼 이슬이 붉었으며 찬란한 광채는 모란처럼 아침 햇빛에 어리었으니 진실로 서왕모 요지연(瑤池淵)에 내려움이 아니면 월궁항아가 인간을 희롱함인가, 한번 봄에 정신이 황홀하여 이욕이 생각하되,

‘ ㉣ 내 여색을 많이 보지 못하였으나 내 눈을 놀라게 할

이 없다 생각했는데 오늘날 소저를 대하니 심신이 황홀하도다.’

소저 또한 아미를 잠깐 들어 대성을 살펴보니 위풍이 엄하고 풍채 현앙(軒昂)하여 한번 보매 심중에 경복함을 마지아니 하더라.

승상이 대성을 돌아보아 말하기를,

“오늘날 군자와 숙녀의 인연을 맺음에 너희 양인이 각각 글을 지어 노부의 마음을 쾌케하라.”

대성이 뜻을 받들어 붓을 들어 쓰니 용사비등(龍蛇飛騰)하고 인사가 쾌활하니 글에 하였으되,

‘춘풍이 사람을 인연하여 옥경에 오르니 세상 진애(塵埃)를 벗어난 듯, 상하 그림자 경수에 비침이여 월색이 무광함을 깨닫는구나.’

하였더라. 승상이 대성의 그 뜻이 화려함을 재삼 칭찬하고 소저의 화답을 재촉하니 소저 아미를 숙이고 마지못하여 산호필을 들어 일필휘지하니 자자주옥이라. 그 글에 하였으되,

‘낙낙장송은 군자절이요, 의의취죽은 열녀조라. 금일에 붕명하니 천지위증은 일월명이라’

하였거늘 승상이 받아보고 무수히 칭찬하여 말하기를,

“천지를 가리켜 일월을 일렀으니 굳은 뜻이 아름답거니와 송죽을 비함을 수절할 뜻이니 어찌 사의가 이렇듯 불길하뇨? 그러나 언약을 맺음은 기쁜 일이니 어찌 쾌치 아니하리오.”

하고 두 글을 바꾸어 서고 주며 말하기를,

“오늘날 인륜을 이루었느니 각각 간수하여 서로 신물을 삼으라.”

대성이 받아보니 시법이 청신하고 필획이 기이한지라. ㉠ 심중에 탄복하여 거두어 소매에 넣으니 소저 또한 사양치 아니하고 혼연히 받으니 승상이 희색이 만연하되 홀로 왕씨는 불열하더라. 석양이 되매 대성이 서당으로 나와 촛불을 대하여 소저의 재덕을 못내 흠양하더라.

승상이 택일하여 혼사를 이루고저 하더니 슬프다. ㉡ 조물이 시기하여 승상이 홀연 득병하여 중세 위중한지라. 세 아들은 벼슬에 매여 경성에 있으니 길이 멀어 통하지 못하고 대성이 약을 달여 바치며 주야 근심으로 지내더라. 승상이 스스로 기세(棄世)할 줄 알고 부인과 소저를 불러 마지막 말을 남기더라. - 작자미상, 「소대성전」 -

3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전개가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에 대해 비유적 방식으로 호의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야기가 느리게 진행된다.
- ④ 이 장면의 주도적인 인물은 다른 인물과 대립하고 있어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 ⑤ 이야기 내용에 대해 서술자가 자신의 판단을 제공하여 이야기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기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37.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위 글을 이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 영웅 소설은 사대부가 쓴 경우가 많다. 이런 소설에서는 작가계층인 사대부의 세계관과 그들의 꿈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가정과 국가를 중시하는 유교적 사상과 세계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을 중시하며, 이러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경륜을 펼치고자 하였는데, 소설에서는 공명 출세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전쟁 관련 소설은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 ① 여자도 학문적 소양을 교양으로 갖추는 것이 기본 덕목이야.
- ② 소저는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아버지 뜻에 따라 혼인을 결심한 거야.
- ③ 대성에 대한 왕부인의 판단은 대성의 공명 출세 가능성과 관련이 있어.
- ④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연을 맺는 혼사의 중요성에 모든 인물들은 유의하고 있어.
- ⑤ 아버지가 강압으로 딸의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것은 유교의 가부장적 사회와 관련돼.

38. 위 글의 밑줄 친 ㉠ ~ ㉢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승상은 왕부인이 대성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음을 알고 있다.
- ② ㉡ : 왕부인은 소저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게 된다.
- ③ ㉢ :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에 대해 소저를 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 : 대성은 소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 ⑤ ㉤ : 소저와 대성의 혼인 문제에서 왕부인만 속으로 반대하고 있다.

39. 위 글의 밑줄 친 ㉣ 상황을 나타낸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후회막급(後悔莫及)
- ③ 구이지학(口耳之學)
-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 ⑤ 평지낙상(平地落傷)

[정답]

1-④ 2-② 3-③ 4-⑤ 5-⑤

6-④ 7-① 8-② 9-③

10-② 11-① 12-③ 13-④

14-② 15-⑤ 16-④ 17-③

18-③ 19-⑤ 20-③ 21-④ 22-②

23-⑤ 24-⑤

25-④ 26-⑤ 27-①

28-① 29-③ 30-② 31-⑤

32-④ 33-① 34-⑤ 35-⑤

36-④ 37-② 38-③ 39-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십시오.